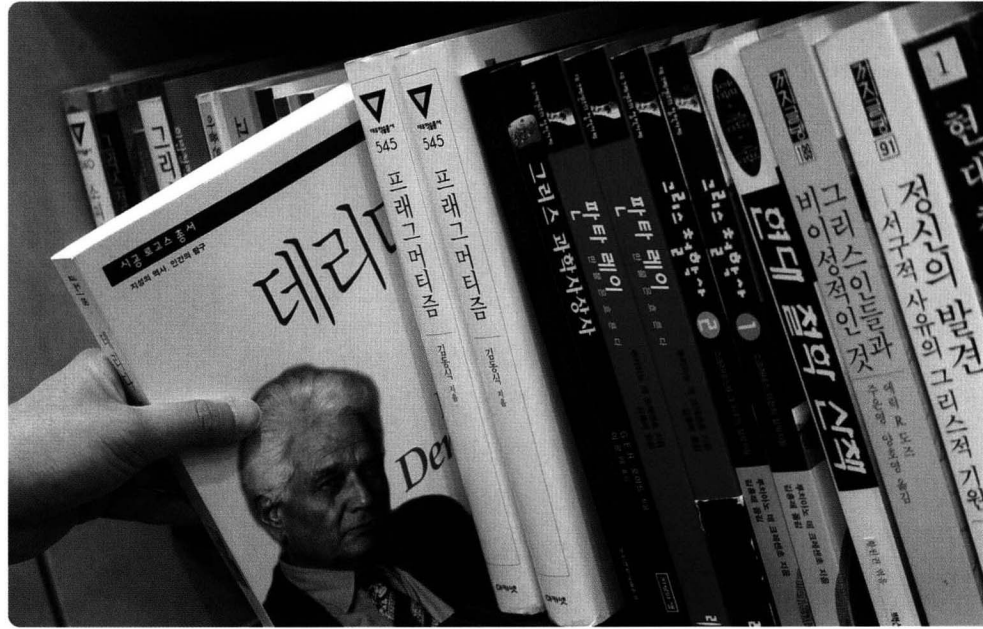


자크. 데리다. 또는. 해체론의. 생애.

2004년 10월 향년 74세로 타계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

진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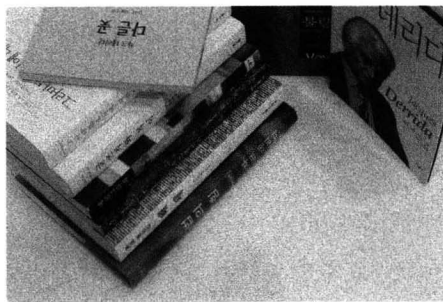
| 지난 10월 8일 파리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자크 데리다 (1930~2004)는 레비스트로스, 알튀세르, 리캉, 바르트, 푸코, 들뢰즈 등과 더불어 20세기 후반 프랑스 구조주의 운동의 대표자 중 한 명이며, 실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을 만한 철학자이다.

● 현상학과 구조주의를 넘어서

데리다의 지적 여정은 1960년대 프랑스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두 사조인 현상학과 구조주의와의 이중적 대결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최초의 저작인 《후설 '기하학의 기원'에 대한 서론》(1962)이나 《목소리와 현상》(1967) 같은 저작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학은 데리다의 철학이 성장한 토양이자 데리다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철학이었다. 후설에게 현상학의 근본 원리, 원리 중의 원리는 '생생한 현재'다. 생생한 현재 속에서 사태의 의미가 충만하게 의식에 드러날 때, 또는 적어도 그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전제될 때, 비로소 진리로서의 로고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구조주의 운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레비스트로스는 유명한 《슬픈 열대》에서 미개한 원주민들의 순박함과 인간성을 찬양하고 있다. 루소가 《언어기원론》에서 했던 주장을



● 이 글을 쓴 진태원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차이에서 유령본으로> <스피노자의 현재성> <스피노자의 자기원인 개념> <스피노자 정치학에서 사회계약론의 해체 I>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 <리캉의 재탄생> <공저> <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 등이 있다. 주요 역서로는 <에코그래피> <공역> <법의 힘> <헤겔 또는 스피노자> 등이 있다.

이어받아 그는 이들의 순박함은 문자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문자기록은 인류의 지적 능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인류의 삶 속에 기만과 폭력, 착취도 가져온 도구이며, 이들 원주민들은 문자기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퇴락과 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테리다가 보기에 이들의 주장은 동일한 뿌리, 곧 서양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현전現前의 형이상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현전의 형이상학은 이 세계가 신이나 로고스, 진리, 기원과 목적 등과 같은 근원적인 원리에 따라 질서지어지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테리다는 그 핵심을 로고스중심주의와 음성중심주의에서 찾고 있다. 곧 그에 따르면 현전의 형이상학은 생생한 현재 속에서 사태의 의미, 로고스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음성언어가 문자기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음성언어가 문자기록에 비해 근원적이고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성언어를 좀더 정확히 표현해주는 표음문자가 표의문자, 상형문자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테리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이들이 에크리튀르 *écriture*, 곧 기록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기록이야말로 로고스나 음성언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기술적 토대이다. 어떤 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존과 반복은 바로 기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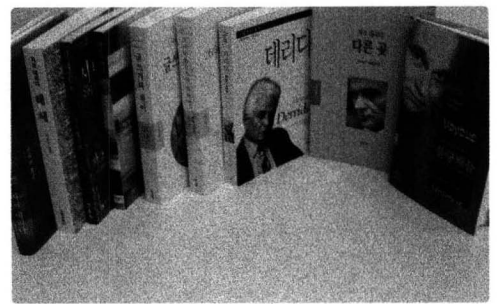
이는 기원이나 로고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회적—一回의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들은 기원이나 로고스로 알려질 수도,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원이나 로고스 역시 기원이나 로고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기록에 의해 비로소 기원이나 로고스가 가능해진다면, 현전의 형이상학의 주장과는 달리 기원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로 기록이며, 로고스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된다. 따라서 결국 기원은 기원일 수 없고 로고스는 로고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유령들에 대한 환대

이처럼 기원과 로고스는 기록의 과생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테리다는 끊임없이 회의주의자, 상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테리다의 진의는 우리가 현전의 형이상학처럼 근원적인 진리나 로고스를 가정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역사도,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이 근원적인 로고스 속에 담겨 있는 이상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서양문명의 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정의로 간주되는 이상 서양의 문명과 다른 타자들에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리다가 1990년대 이후 유령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윤리·정치사상을 전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현존하는 것도 부재하는 것도 아닌 유령들이라는 형상은 기원의 부재라는 해체의 원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에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행할 것을 명령하는 타자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리다는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과 종교적 박해의 피해자들, 사형수들 및 그 외 많은 '약자들'에서 이러한 유령들의 구체적인 현실태를 발견하며, 이러한 타자들의 부름, 정의에 대한 호소에 응답하고 환대하는 일이야말로 살아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윤리적·정치적 책임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테리다가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한 것은 그의 철학사상의 전개과정과 매우 합치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테리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내에서 테리다는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조始祖로 간주되지만, 이것만큼 반테리다적인 관점도 드물 것이다. 테리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포스트모더니스트라는 명칭에 결연히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테리다가 이처럼 엉뚱한 오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저작들 중 제대로 번역된 책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80여 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 중 10여 종 이상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심지어 프랑스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번역되어, 테리다 특유의 현란한 언어유희나 섬세한 논의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의 삶이란 저작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에게 테리다는 처음부터 생명을 박탈당한 유령, 환영이었던 셈이다.

빼어났지만 그만큼 고단했던 삶을 마감함으로써 테리다는 실제로 유령, 망령이 되어 그의 저작들, 그의 기록들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서 허망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을 쫓는 대신, 테리다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의 기록들 안에 깃들어 있는 타자의 부름에 귀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